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희 성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희 성

인 준 서

김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논문 개요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에게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우울, 불안, 특성분노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분노표현 방식을 증진시키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이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0명씩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에는 게슈탈트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90분씩 매주 2회 총 10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울 검사(CDI), 불안검사(STAI), 특성분노 검사(STAXI-K), 분노표현 검사(STAXI-K), 자아존중감(SEQ) 검사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게슈탈트 예술치료 실시 직후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상태 및 기능을 보고하는 우울, 불안, 특성분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치료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게슈탈트 예술치료 종결 3주 후에 실시한 검사결과, 청소년이 보고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분노표현의 증가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주관적 보고 결과로 분노표현을 증가시키며,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2. 연구문제 및 가설3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폭력의 일반적 정의5
 - 1) 가정폭력의 정의5
 - 2) 가정폭력의 형태와 유형6
- 2.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문제6
 - 1) 부부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제6
 - 2) 부모에 의한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제7
- 3. 게슈탈트 치료9
 - 1) 게슈탈트 예술치료9
 - 2)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에 대한 게슈탈트 치료11

III. 연구방법

- 1. 프로그램의 개발13
 -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13
 - 2) 프로그램의 구성16
 - 2) 프로그램의 실행17
- 2. 연구 참여자18

1) 연구대상	18
2)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자	19
3. 연구도구	19
1) 가정폭력 경험 척도	19
2) 우울 척도	21
3) 불안 척도	22
4) 특성분노 척도	22
5) 분노표현 척도	23
6) 자아존중감 척도	25
4. 연구절차 및 실험설계	26
1) 연구절차	26
2) 실험설계	26
5. 자료 분석	27

IV. 연구결과

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28
2.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29
3. 집단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 검증	36
1) 우울의 하위요인 차이검증	36
3) 특성분노의 하위요인 차이검증	36
4) 분노표현의 하위요인 차이검증	36
4.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	37
1) 치료집단의 우울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38
2) 치료집단의 불안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38
3) 치료집단의 특성분노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39
4) 치료집단의 분노표현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39
5) 치료집단의 자아존중감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40

V.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41
 - 1)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41
 - 2) 프로그램 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41
2. 연구의 의의44
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4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위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전체 구성	17
표 2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8
표 3 가정폭력 경험 평균점수	20
표 4 가정폭력 척도의 하위 영역별 측정내용	20
표 5 하위영역별 가정폭력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0
표 6 하위영역별 아동우울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1
표 7 특성분노의 하위 영역별 측정내용	23
표 8 하위영역별 특성분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3
표 9 분노표현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24
표 10 하위영역별 분노표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5
표 11 하위영역별 자아존중감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5
표 12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28
표 12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23
표 13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반복측정 ANOVA	29
표 14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30
표 15 효과의 지속성 검증	37

그림 목 차

그림 1 우울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	31
그림 2 불안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32
그림 3 특성분노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33
그림 4 분노표현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34
그림 5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35
그림 6 우울의 사전-사후-추후 점수 변화	38
그림 7 불안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38
그림 8 특성분노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39
그림 9 분노표현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39
그림 10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실시되는 가운데에서도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2007년 여성의 전화 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로는 우리나라 전체 6가구 중 1가구, 시간적으로는 1분에 3건 정도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로 13만 1445건이 신고 됐고 피해자 수가 4만9천282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마지막 선택임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임현정, 2007)

폭력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와 구타를 참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서 왜곡된 인간관계의 모델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어 분노와 적개심 등의 정서가 누적되고, 일상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이소희, 2006). 또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인격 장애, 판단력과 사고장애, 학습장애, 대인관계의 실패, 적응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심리,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난다(2007, 안정란)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인이 되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Slovak, 2997, Lichter& Erika,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 중심으로 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감추어진 존재', '침묵의 희생자'로 사회적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장덕희, 2001).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에게 여러 부정적인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의 세대 간 전승을 유발하는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위한 심리학적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미술치료를 통하여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가 보고 되었는데, 전윤경(2006)은 미술치료가 가정폭력 아동의 위축,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 등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적응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집단 놀이치료와 관련하여 강지현(2004)은 집단 놀이치료가 가정폭력 아동의 부적응 감소와 공격성과 비행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미술치료,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공격성 및 비행행동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연구되고 있다.

집단상담은 비교적 정상적인 개인들로 하여금 더욱 합리적인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이장호, 김정희, 1992), 그중에서도 게슈탈트 집단상담은 현상학적, 실존적 접근법으로서 '지금-여기'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을 강조하는 상담기법이다(한혜영, 2000). 게슈탈트 치료는 신체와 감각, 감정, 욕구, 사고 그리고 행동 등을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

닌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보고, 개체와 환경을 포함하는 전체 장의 부분으로 봄으로써 개체의 행동을 전체 장의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김정규, 2003). 계슈탈트 집단 상담에서는 ‘지금-여기’를 알아차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미해결 과제를 집단 속에서 완결 지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슈탈트 심리 치료적 접근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그에 관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자아존중감, 자기 표현력에 대하여 계슈탈트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윤진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계슈탈트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적응 아동의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고, 비언어적 활동 중심의 계슈탈트 집단상담은 초등학생의 자기표현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전병식, 2002). 또한, 부적응 문제를 가진 영세가정 아동들의 계슈탈트 집단치료결과 우울과 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김주희, 2004), 내면화 문제를 가진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우울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바 있다(최지순, 2006).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계슈탈트 집단치료를 실시하고, 우울, 불안, 분노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척도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치료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 내부에 누적되어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자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게슈탈트 예술치료에 의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 내부에 누적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될 것인가?

가설 1-1.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우울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불안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3.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4.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분노표현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2. 게슈탈트 예술치료에 의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인가?

가설 2.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상승 될 것이다.

연구문제 3. 게슈탈트 예술치료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치료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가설 3.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우울, 불안, 분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 변화는 추후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일반적 정의

1) 가정폭력의 정의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는데 (Straus, 1990) 여기에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인 학대가 모두 포함되는데, 유형별로는 아내학대와 아동학대를 비롯해서 근친강간, 가정 내 존속살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형제나 부모 또는 노인 학대, 그리고 남편학대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박미은, 1998). 폭력(violence)과 학대(abuse)를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학대를 폭력의 하위범주에 포함시키는 관점과 학대를 신체적 폭력과 비신체적 폭력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는 관점 등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관점을 사용하여 가정폭력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포함시키는 상위개념으로 정의할 것이다.

2) 가정폭력의 형태와 유형

가정폭력의 구분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첫째 의학적 필요가 필요 없는 정도, 둘째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 셋째 병원에 입원할 정도, 넷째 사망으로 구분한다. 빈도에 따라서는 첫째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폭행, 둘째 상황에 따른 폭행, 셋째 악순환으로 폭행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폭행, 넷째 주기적인 폭행으로 구분한다.

가정폭력의 분류는 Gelles와 Straus(1979)에 따르자면,

① 합법적-감정 표현적 폭력 : 일반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폭력 형태로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상적인 공격의 표현은 억누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상적인 공격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면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거나 지나치지 않은 형제들끼리의 싸움 등이 있다.

② 비합법적-감정 표현적 폭력 :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으로 아내구타, 아동구타, 노인학대 등이 이에 속하다. 이 유형의 폭력은 유기, 학대, 살인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된다.

③ 합법적-수단적 폭력 :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폭력으로 체벌이 대표적이다.

④ 비합법적-수단적 폭력 : 합법적-감정 표현적 폭력이 과도해 심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문제

1) 부부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제

자녀는 직접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부부 폭력을 목격하는 경험만으로도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상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자신의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유일한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의 손상과 존경심의 파괴를 가져온다. 또한 부모의 폭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며 많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또한 대인간 폭력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행동적응에 문제가 있고,

사회적 경쟁력이 낮으며, 높은 불안감과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다(이 소희, 2007). 좀처럼 대인관계에서 안전감을 갖기 어렵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쉽게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다양한 내면성 문제를 보이며(이상준, 2006),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등의 외현성 문제도 나타낸다(안정란, 2007).

부모의 폭력을 보고 성장한 자녀들은 폭력을 갈등해결의 적절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쉬워 스트레스 상황이나 힘든 갈등을 겪을 때 쉽게 폭력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된다(Jaffee, 1990). 심리 내면에 누적된 적개심과 공격성으로 인해 학교 장면에서 교우간에 쉽사리 공격적인 행동이나 파괴적인 태도를 드러내 학교 폭력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1984). 또한 청년이 되어 이성 교제를 할 경우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과 더 연관성이 높다고 하며, 가정을 꾸렸을 때에도 배우자와의 갈등 시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고 한다(김양희, 1998). 이러한 과정은 가정폭력을 목격한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세대 간 전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의 학대를 직접 받은 경우보다는 부부의 폭력을 관찰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훨씬 학대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Douglas, 1991 : Elbow, 1982).

2) 부모에 의한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인성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traus 와 Gelles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내 6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50%가 자녀 또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여성의 자녀 중 90%가 가정폭력을 폭격하고 그들 중 50%가 가정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 1991). 이와 같이 부부 폭력을 목격하는 자녀는 학대에 의한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다.

부모의 자녀 폭력은 어린 연령일수록 치명적이지만 성장이후의 생애에도 누적되어 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한 가지의 학대 유형이 다른 유형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적인 영향을 갖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경주, 1998). 신체적인 학대보다도 언어적 폭력 및 방임과 같은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인성발달에는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폭언을 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혜련, 1993).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고 타인과 외부세계를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기 쉽다. 새로운 것이나 낯선 대상을 접하게 되면 쉽게 불안해지며, 대인민감성이 높아져 과도한 불안을 보이거나, 오히려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공격적 태도를 보여 대인관계 갈등을 겪고 위축되기도 한다(곽영숙, 홍강의 1986). 고성혜(1992)는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아동을 정서적, 지적 불구로 만들고 아동의 자아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학대 받은 아동은 자신의 분노감정이나 공격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자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성을 표출하는 등 정서조절 기능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나 심리 상태로 인해 학대를 경험한 자녀들은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신체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우울증, 자살사고, 정신질환, 공포증 등의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학교에서도 학습 부진을 겪거나, 원만치 못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도벽이나 폭력 등의 행동장애를 보인다고 한다(권지영, 1991). 학대받은 청소년은 많은 경우 비행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폭력부모를 동일시하여 학교 폭력, 비행 및 가출행동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주영희, 1984).

3. 게슈탈트 치료

1) 게슈탈트 예술치료

게슈탈트 치료는 ‘지금 여기(here & now)’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치료방법으로 분석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실존적인 체험을 강조한다(Perls, 1969; 김명식, 김정규, 1993 재인용). 개체의 해결되지 않은 정서나 욕구인 미해결과제는 끊임없이 완결을 요구함으로써 개체로 하여금 현재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새로운 상황을 지각할 때도 미해결과제와 연관시켜 지각하게 함으로써 상황을 왜곡지각하게 한다. 이러한 미해결된 상황과 표현되지 않은 정서를 의식하고 다루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현재 중심적인 인식과 효과적인 기능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김정규, 1995).

게슈탈트 치료는 신체적,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활동적 측면에서 개인적·환경적 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집중하여 접촉하는 과정인 ‘알아차림’을 통해 미해결 과제를 완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 Perls는 미해결 과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에 관련된 느낌을 훈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eorge & Cristiani, 1995). 그래서 집단치료의 상황에서는 항상 내담자의 현재감정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미해결된 과제와 현재의 중요한 욕구를 전경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미해결된 과제를 현재 이 자리에서 직접 조우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김명식, 김정규, 1993). 또한, 게슈탈트 집단상담은 경험의 사용과 전체적인 초점, 그리고 현재 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를 위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특히 적합하다(Melnick, 1980).

게슈탈트 치료의 일환인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창조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통합 동작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시, 인형 및 가면을 사용

한 통합적 치료 작업, 드라마 게임 및 팬터마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Petzold. H., 2001; 이영이, 2001 재인용). 미디어를 통한 치료는 비언어적 표현 가능성을 제공하여,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카타르시스 효과와 함께 창의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Amendt-Lyon(2001)에 따르면, 내담자들의 고유한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강점이 어떤 감각 양식에 놓여있는지 알게 되면 내담자가 선호하는 경험방식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하였다. 예술매체를 사용한 심리상담 및 치료에서는 떠오르는 분위기, 장면, 사건과 연관된 느낌, 감정 및 욕구를 찰흙을 주무르며,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며, 혹은 물감을 찍어 바르며 자각하고, 표출하게 된다. 미디어를 사용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창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본질적인 속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이영이, 2001). 또한, 매체를 통하여 개인적 사건이나 대상, 사물을 시각화함으로써 미해결 과제와 더불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더욱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러한 알아차림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와 동일시하고,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단지 창조적인 표현의 생산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Amendt-Lyon, 2001). 특히 아동들의 상담 시,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 시켜서 표현하고 접근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어위주의 상담보다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자유롭게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치료는 아이들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활용도가 높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창작물은 자신의 내면을 투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이야기는 아동의 삶이나 자신의 욕구, 소망, 감정을 나타내고, 이러한 것을 상징적인 매체로 투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치료적이다(Oakland, 1997).

Eaton(2007)의 연구에 따르면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외상을 입은 아이들

에게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고, Mally(2002) 또한 예술치료가 뇌손상이 의심되는 PTSD 아동에게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단기 예술치료가 심각한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Terry, 1990).

2)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에 대한 계슈탈트 치료

계슈탈트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인 미해결 과제(unfinished business)는 개체의 해결되지 않은 정서나 욕구를 의미한다. 미해결 과제에는 분노, 증오, 격노, 고통, 상처, 불안, 죄책감, 비탄 등과 같은 표현 되지 않은 느낌, 배경에 남아 있는 사건과 기억이 포함된다(임정민, 2003). 이들은 끊임없이 완결을 요구함으로써 개체로 하여금 현재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새로운 상황을 지각할 때 미해결 과제와 연관시켜 지각하게 만듦으로써 상황을 왜곡 지각하게 만든다(김정규, 1995).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뢰와 친밀감의 대상으로부터 행해진 폭력의 영향으로 분노, 공격성의 감정이 심리 내면에 억압되어 있으나 이러한 감정들은 겉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채 쉽게 우울하고 슬픈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울 뒤에 숨어 있는 이러한 분노는 개체의 가장 중요한 미해결 감정 중의 하나로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나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미해결 과제로 남으며, 개체가 다른 긍정적 감정을 체험할 기회를 막아버린다.

Perls(1973)는 불안을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격으로 보았다. 개체가 현재의 시점을 떠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며 미래 시점에 오래 머물수록 불안의 경험과 강도는 심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만일 개체가 감정을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한다면 불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불안이란 미해결 과제 때문에 발생하거나 또는 죄책감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그는 이것을 표현되지 않은 분노라고 불렀다.

계슈탈트 집단상담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이 겪는 분노나 두려움, 슬픔, 걱정, 좌절 같은 감정이 본인 혼자만이 겪고 있는 감정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통해 안정감을 찾게 되며 불안을 감소시키게 된다(한혜영, 2001).

계슈탈트 치료에서는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또한 불안과 관련된 성격 특성들을 다루는데, 개체가 현재를 잘 알아차리고 충분히 호흡할 때 불안이 유의미하게 감소된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현재에 집중해서 머무르고, 호흡 훈련, 명상, 이완 훈련, 신체 자각 훈련들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불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운다(Yontef, 1997; 최지순, 2006 재인용).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pper와 Gilade(1978)는 계슈탈트 상담기법이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Serok(1991)는 대학생들의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슈탈트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 계슈탈트 기법이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Greenberg와 Webster(1982)는 계슈탈트 집단 상담을 통한 계슈탈트 상담기법 사용은 갈등 해결 및 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이순일(1997)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계슈탈트 집단 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정규(2003)의 연구에서는 불안장애의 계슈탈트 치료이론을 바탕으로 비파사나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합한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계슈탈트 치료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이해하며, 우울 뒤에 숨어 있는 반전된 분노감에 주목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 내부에 힘이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며, 치료자-환자 간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과 공감적 만남 및 지지를 통해 불안을 해소한다. 또한 지금-여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자각을 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Ⅲ. 연구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게슈탈트 예술치료의 활동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심리 내부에 누적되어 있는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상호교류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모든 삶의 가능성을 꽃피워 나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독립적이 보다는 상호 관련이 있고 상보적인 것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① 체험확장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의 상당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압하고 있으며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접촉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심리 내부에 억압되어 왔던 감정이나 욕구를 접촉하게 해주어 체험영역, 즉 '나-경계(I-boundary)'를 확장시킴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며,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점차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향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도록 돕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청소년들이 즐겁고 기쁜 감정들 뿐 만 아니라 그들이 목격한 폭력 및 그와 관련된 분노 우울 슬픔 공포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삶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게슈탈트 예술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가 있다.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고 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삶의 중요한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타인과의 만남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체험을 확장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통찰을 얻는다면,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② 통합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게 되며, 그러한 상황이 반복됨에도 아무런 대책을 취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를 또한 억압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박근혜, 1999). 이렇게 억압되어 버린 분노 감정이나 공격충동은 자신에게서 소외되고 분리되어 타인이나 외부환경으로 투사되어 쉽사리 불신감과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우울감과 죄책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청소년들이 접촉하지 못하고 소외시켜 버린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게 하여 다시 찾아서 자각하고 통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

③ 자립 및 책임자각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 보다 힘이 센 부모가 행사하

는 폭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김정기, 2002).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그러한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둔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며 자기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쉽사리 타인에게 과도한 의존을 보이거나 반대로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든다(한혜정, 2005).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도한 의존 및 지배의 구조를 좌절시키고 청소년들 각자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동원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지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청소년들이 각자 자기 안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며, 주위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④ 성장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분노 감정들과 같은 심리 내부에 누적되어 있는 부정적 증상들을 제거하고 교정하는 것에 더하여, 청소년들의 자생력을 북돋아주어 스스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데 목표를 둔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는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지지와 온정보다는 오히려 폭력을 경험하여 왔으며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운데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도록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북돋우어 주는 것이, 향후 스스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구성

김정규(1996)의 '계슈탈트 심리치료'와 Violet Oaklander의 'Window to our children'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① 초기 단계 (1-3회기)

초기에는 주로 집단 내 친밀감을 향상하고 자신의 신체감각과 감정 나아가 욕구를 자각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② 중기 단계(4~7회기)

중기에는 악기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이후 과거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접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가족 및 상처 받은 감정에 대한 미해결 과제와 투사 및 내사를 다룰 수 있는 회기를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③ 후기 단계(8~10회기)

후기에는 집단원이 서로 지지체계가 되어 줄 수 있는 작업과 자신들의 미해결 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작업을 하여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느낌이나 개념들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작업을 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1시간 30분씩 모두 10회기를 진행하였다. 매주 2회기씩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소년들의 사정에 따라 주 1회를 하기도 해 총 6주가 걸렸다. 장소는 보육원에 있는 배움터를 이용하였다.

<표1>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을 위한 계슈탈트예술치료 프로그램 전체구성

단계	회기	목적	활동내용	소요시간
초기	1	소개 집단친밀감 형성 및 집단역동파악	소개하기 / 집단그림	(90분)
	2	억압된 감정의 접촉 및 표현	환상여행	(90분)
	3	억압된 감정의 접촉 및 표현	즉흥연주	(90분)
중기	4	다양한 감정의 접촉 및 표현	분노의 다양한 표현	(90분)
	5	가족 관련 미해결 과제 다루기(1)	찰흙접촉	(90분)
	6	가족 관련 미해결 과제 다루기(2)	찰흙작업	(90분)
	7	미해결 과제 다루기	내가 부러운 것	(90분)
후기	8	체험확장 및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폐품조각	(90분)
	9	체험확장 및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콜라주	(90분)
	10	집단 활동의 마무리	집단 feed-back 파티	(90분)

2. 연구 참여자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1, 2,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활기록지를 통해 부모님과 동거한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이상인 청소년을 일차 선별하고, 그 중 가정폭력 경험척도를 사용하여 척도 점수가 고위험 수준 이상인 청소년 20명을 선발하였다.

남, 녀 각각 제비뽑기를 하여 무작위로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고 대상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험집단 (n=10)	통제집단 (n=10)	전체 (n=20)
성별	남	3	3	6
	여	7	7	14
학년	중1	2	4	6
	중2	1	1	2
	중3	7	5	12
부모와의 동거기간	5년 이상	3	4	7
	10년이상	7	6	13
가정폭력경험	평균	65.8	66.4	66.1
	표준오차	6.68	6.06	6.37

연구대상자의 남녀비율은 치료집단 3:7, 통제집단 3:7의 비율로 이루어졌고, 중3학생의 비율이 중1, 2학생에 비해 더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 기간이 적게는 5년 이상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되는 것은, 연구대상자로 선발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혼 및 부부불화로 인한 해체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

으로, 이 과정에서 부부폭력 및 부모에 의한 폭력 경험을 많이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 척도 결과에서도 실험 집단의 경우 평균 65.8(6.68), 통제 집단의 경우 평균 66.4(6.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준(2006)이 실시한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 연구에서 분류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여서 연구 대상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다.

<표 3>가정폭력 경험 평균점수

	가정폭력 경험 집단			고위험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가정폭력	1461	16.10	18.63	363	34.57	25.41
방임	1.277	10.46	9.50	363	14.41	10.15
정서폭력	1.037	5.89	5.88	363	9.99	6.84
신체폭력	452	8.97	11.70	363	10.17	12.26

*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이상준, 2006)

2)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자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 본인이 진행을 하였고, 보조치료자로 진행자와 경력이 비슷한 임상심리 석사과정 학생이 참여를 하였다.

3. 연구도구

1) 가정폭력 경험 척도

청소년의 부부폭력 목격 정도와 자녀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등(1996)이 개발한 CTS(Conflict Tactics Scales)와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장덕희(2001)가 수정, 보완하고, 최은영(2006)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0점에서 4점까지로 평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경험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은영(2006)의 연구에서 가정폭력 경험 척도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과 문항구성,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표와 같다.

<표 4> 가정폭력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영역	측정내용	
부부폭력	부부 간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거나, 뺨을 때리는 경미한 수준에서 흉기를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를 측정	
자녀폭력	언어폭력	위협이나, 무시, 증오, 차별, 욕설 등을 함으로써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생활에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을 측정.
	신체폭력	자녀의 신체에 확인한 손상을 가져온, 육안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측정.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측정.

<표 5> 하위영역별 가정폭력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부부폭력	1, 2, 3, 4, 5, 6, 7, 8	8개	.93	
자녀폭력	언어폭력	9, 10, 11, 12, 13, 14	6개	.87
	신체폭력	15, 16, 17, 18, 19, 20, 21	7개	.87
	방임	22, 23, 24, 25, 26, 27, 28, 29	8개	.85

2) 아동 청소년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Kovacs 와 Beck(1977)이 아동기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CDI를, 조수철, 이영식(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eck의 성인용 우울 척도를 아동이 연령에 맞게 변형시켜 7세~17세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0점, 1점, 2점으로 평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0점~54점으로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정치를 합산한 총점이 우울정도를 나타낸다. 한국형 CD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2, 반분신뢰도 계수는 .71, 그리고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이다. CDI의 평균은 14.7(표준편차 7.3)점으로 이는 외국의 연구들(Green, 1980; Smucker, Craighead & Green, 1986)에서 보고 된 8~10점 범위 이내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6> 하위영역별 아동우울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 인	문 항 번 호		문 항 수	Cronbach α
	정방향	역방향		
우울정서	1, 20	8, 10, 24	5개	.70
행동문제	3, 9, 26, 27	11, 13, 15	7개	.56
흥미상실	4, 12, 22, 23	2, 21, 25	7개	.62
자기비하	6, 14	5, 7	4개	.67
신체증상	17, 19	16, 18	4개	.55

3)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 및 Lashene(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1978)이 한국형으로 표준화시킨 것 중 특성불안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불안은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개인의 긴장, 걱정의 성향이므로 특성불안 20 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1점, 2점, 3점, 4점으로 평정하게 되며, 총점의 범위는 20점~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성 불안 척도(STAI-T)에 대한 김정택(1978)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91이다.

채점방식은 부정적 문항 7문항(1, 6, 7, 19, 13, 16, 19)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3점, '다소 그런 편이다'를 2점, '아주 그렇다'를 1점으로 채점하고, 긍정적 문항 13문항(2, 3, 4, 5, 8, 9, 11, 12, 14, 15, 17, 18, 20)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2점, '다소 그런 편이다'를 3점, '아주 그렇다'를 4점으로 채점한다.

4) 분노 척도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하고, 박진숙(200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 경험과 경험된 분노의 표현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분노경험은 상태분노(10문항)과 특성분노(10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의 표현은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4-1) 특성 분노 척도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노는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개인의 긴장, 걱정의 성향이므로 특성분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는데, 특성분노는 다시 분노기질과 분노 상황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세분화 된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1점, 2점, 3점, 4점으로 평정하게 되며, 총점의 범위는 10점~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분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성 분노 척도에 대한 전 검구(1996)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78이고, 내적 신뢰도는 .86이었다.

<표 7> 특성분노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영역	측정내용
분노기질	개인이 얼마나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지를 측정. '나는 쉽게 화를 낸다' '나는 불같은 성격을 지녔다'
분노상황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분노를 경험하는지를 측정. '일을 잘 했는데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격분을 느낀다'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격분한다'

<표 8> 하위영역별 특성분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분노기질	1, 2, 3, 6, 7	5	.86
분노상황	4, 5, 8, 9, 10	5	

4-2) 분노 표현 척도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하고, 박진숙(200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를 느낄 때 나타내는 반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 대해 평소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향을 가장 잘 기술해 주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 2점, 3점, 4점으로 평정한다. 총점의 범위는 24점~96점으로, 분노표현은 표현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분노가 표현되는 일반적인 빈도수와 빈도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분노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의미한다. 계산 방법은 '분노표현=분노억압+ 분노표출-분노통제+16' 이다. 박진숙(2007)의 연구에서 분노표현 척도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과 문항구성,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표와 같다.

<표 9> 분노표현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영역	측정내용
분노표출 (Anger - out)	화가 나면 이를 길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 욕하는 것, 말다툼이나 과격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성향을 측정. '나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분노억압 (Anger - in)	화가 나도 이를 길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고 속으로만 상대방을 비판하는 성향을 측정. '나는 화가 나면 뚱해지거나 토라진다'
분노통제 (Anger - control)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것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측정. '나는 화가 나도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표 10〉 하위영역별 분노표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분노표출 (Anger - out)	2, 7, 9, 12, 14, 19, 22, 23	8	.76
분노억압 (Anger - in)	3, 5, 6, 10, 13, 16, 17, 21	8	.72
분노통제 (Anger - control)	1, 4, 8, 11, 15, 18, 20, 24	8	.68

6)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질문지(Self-Esteem Questionnaire: SEQ)를 김문주(198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평정되며,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포함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10점~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문주(1984)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84로 보고하고 있으며, 임효경(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11〉 하위영역별 자아존중감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긍정적 자아존중감	1, 2, 4, 6, 7	5	.86
부정적 자아존중감	3, 5, 8, 9, 10	5	

4. 연구절차 및 실험설계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 차	일 시
구조화된 프로그램 구성	2007년 7월~8월
집단구성(가정폭력 경험 검사)	2007년 9월 3일~14일
사전검사 실시	2007년 15일
프로그램 실시	2007년 9월 20일 ~ 10월 30일
사후검사 실시	2007년 11월 2일
추후검사 실시	2007년 11월 23일

2) 실험설계

본 연구에 적용된 실험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G_1	O_1	X_1	O_2	O_3
G_2	O_4		O_5	

G_1 : 실험집단 G_2 : 통제집단

O_1, O_4 : 사전검사(우울, 불안, 특성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척도)

O_2, O_5 : 사후검사(우울, 불안, 특성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척도)

O_3 : 추후검사(우울, 불안, 특성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척도)

X_1 : 실험처치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기 위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하였다.

2.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추후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고, 좀 더 자세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료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을 위하여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추후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청소년이 보고한 우울, 불안, 특성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 검사 결과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하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12>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 ($t=1.966$, $p=.065$), 불안 ($t=1.399$, $p=.179$), 특성분노 ($t=1.309$, $p=.207$), 분노표현 ($t=1.444$, $p=.166$), 자아존중감 ($t=-.896$, $p=.38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치료집단(n=10)	통제집단(n=10)	<i>t</i>
	M(SD)	M(SD)	
우울	22.6(7.38)	15.7(2.62)	1.966
불안	55.1(2.09)	49.9(3.07)	1.399
특성분노	27.8(1.36)	24.5(2.12)	1.309
분노표현	34.7(2.71)	30.0(1.79)	1.444
자아존중감	29.2(2.86)	32.5(2.31)	-.896

2.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우울, 불안, 특성 분노를 감소시키고,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반복측정 ANOVA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우울	집단	1215.000	1	1215.000	7.998*
	오차	2734.600	18	151.922	
	측정시기	.900	1	.900	.043
	집단*측정시기	25.600	1	25.600	1.230
	오차	374.500	18	20.806	
불안	집단	260.417	1	260.417	1.064
	오차	4404.433	18	244.691	
	측정시기	4.225	1	4.225	.255
	집단*측정시기	7.225	1	7.225	.436
	오차	298.050	18	16.558	
특성분노	집단	540.000	1	540.000	5.732*
	오차	1695.733	18	94.207	
	측정시기	5.625	1	5.625	.254
	집단*측정시기	38.025	1	38.025	1.720
	오차	397.850	18	22.103	
분노표현	집단	1041.667	1	1041.667	5.932*
	오차	3160.933	18	175.607	
	측정시기	144.400	1	144.400	5.254*
	집단*측정시기	72.900	1	72.900	2.653
	오차	494.700	18	27.483	
자아존중감	집단	8.817	1	8.817	.051
	오차	3098.033	18	172.113	
	측정시기	160.000	1	160.000	9.097*
	집단*측정시기	48.400	1	48.400	2.752
	오차	316.600	18	17.589	

* $p < .05$, ** $p < .01$

또한 이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치료 전과 후의 우울, 불안, 특성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해 비교한 결과가 <표 >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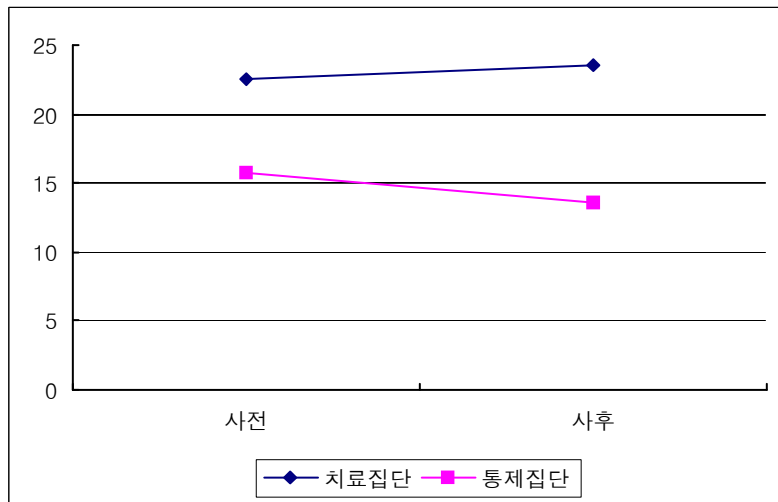
	치료집단(n=10)			통제집단(n=10)		
	사전 M(SD)	사후 M(SD)	<i>t</i>	사전 M(SD)	사후 M(SD)	<i>t</i>
불안	55.1(2.09)	53.9(3.33)	.465	49.9(3.07)	50.1(2.96)	-1.000
우울	22.6(2.33)	23.6(2.73)	-.441	15.7(2.62)	13.6(2.11)	1.160
우울증상	7.0(1.23)	7.9(1.34)	-.842	4.5(1.30)	3.0(.69)	1.830
성취부정사고	6.5(.90)	6.6(.77)	-.107	4.8(.75)	5.1(.83)	-.461
신체증상	1.2(.35)	2.3(.36)	-2.012	1.6(.30)	1.0(.29)	1.765
흥미결여	3.5(.56)	3.3(.63)	.408	2.0(.42)	1.9(.31)	.208
부적자아상	4.4(.45)	3.5(.76)	1.784	2.8(.59)	2.6(.45)	.340
특성분노	27.8(1.36)	30.5(2.22)	-1.369	24.5(2.12)	23.0(2.18)	.665
분노기질	14.6(1.0)	15.6(1.09)	-.845	12.2(1.03)	11.9(1.13)	.237
분노상황	13.2(.95)	14.9(1.27)	-1.164	12.3(1.28)	11.1(1.15)	.943
분노표현	34.7(2.71)	41.5(3.13)	-2.915*	30.0(1.79)	31.3(2.59)	-.537
분노표출	18.9(1.74)	22.6(1.58)	-1.633	18.3(1.39)	17.7(1.30)	.360
분노억제	18.9(1.51)	20.6(1.24)	-2.047	17.1(.90)	16.7(1.30)	.318
분노통제	17.0(1.26)	17.7(1.27)	-.611	19.2(1.20)	19.1(1.31)	.089
자아존중감	29.2(2.86)	34.4(3.37)	-3.050*	32.5(2.31)	34.5(1.93)	-1.107

* $p < .05$, ** $p < .01$

가설 1-1.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우울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t=1.106, p>.05$)은 평균 감소를 보였으나 치료집단($t=-.441, p>.05$)은 평균의 증가를 보였는데, 두 집단 모두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1-1은 지지가 되지 못한다. 우울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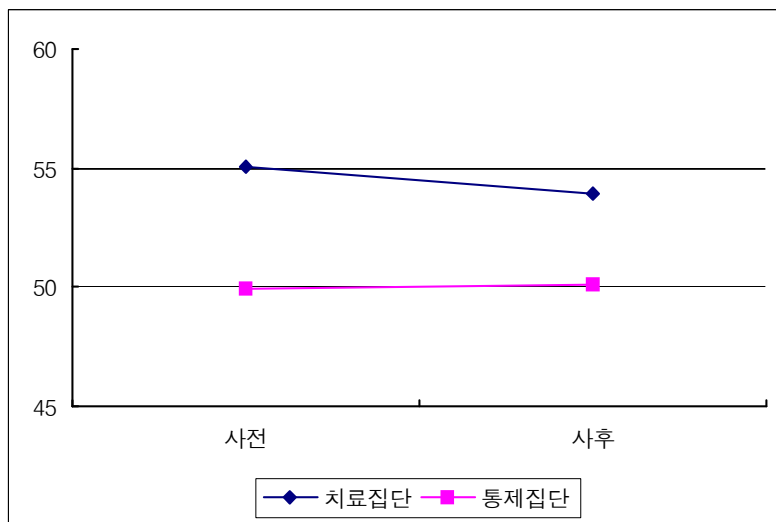
[그림 1] 우울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이로써, 본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우울 척도 점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가설 1-2.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불안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치료집단($t=-1.000, p>.05$)과 통제집단($t=.465, p>.05$) 모두에서 평균 감소를 보였는데, 두 집단 모두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1-2는 지지되지 못한다. 불안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그림2]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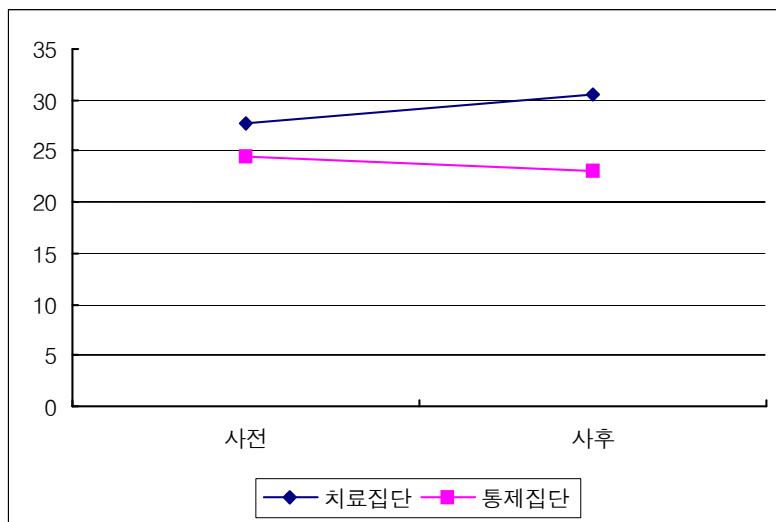
[그림 2] 불안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이로써, 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불안 척도 점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가설 1-3.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특성분노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t=.665, p>.05$)은 평균 감소를 보였고 치료집단($t=-1.369, p>.05$)은 평균의 증가를 보였는데, 두 집단 모두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1-3은 지지가 되지 못한다. 특성분노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그림3]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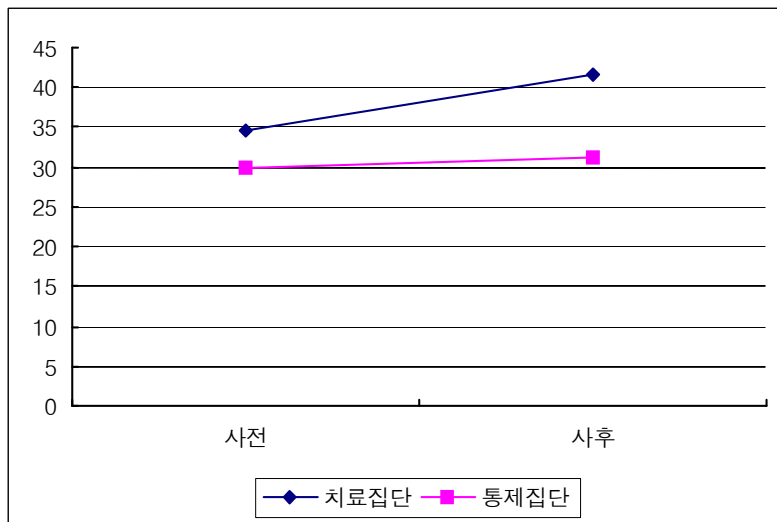
[그림 3] 특성분노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이로써, 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특성분노 척도 점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가설 1-4.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분노표현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t = -.537, p < .05$)과 치료집단($t = -2.915, p > .05$) 모두 평균의 증가를 보였으나, 치료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더 큰 차이로 증가하였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나 오히려 상승하였으므로 척도 점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 되지 못한다. 분노표현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그림4]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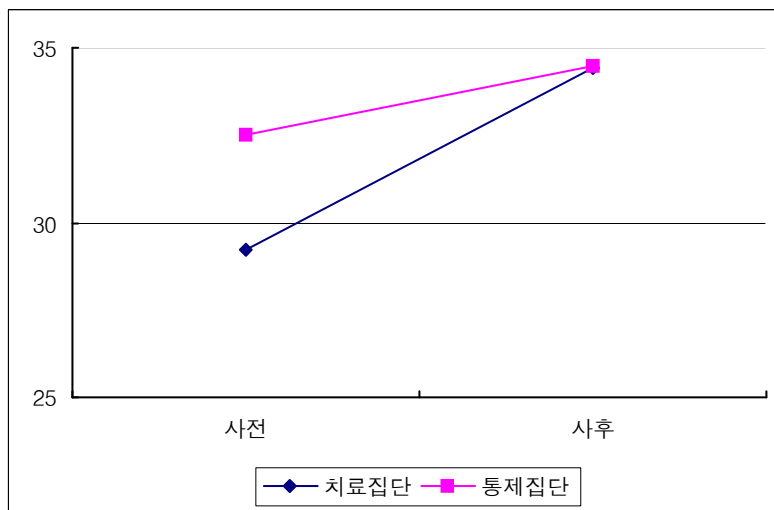
[그림 4] 분노표현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이로써, 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분노표현 척도 점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다.

가설 2.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척도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상승 될 것이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치료집단($t=-3.050, p<.05$)과 통제집단($t=-1.107, p>.05$) 모두 평균의 증가를 보였으나, 치료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더 큰 차이로 증가하였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가설 2는 지지 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를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점수변화

이로써, 본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다.

3. 집단 내 하위요인별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검증

1) 우울의 하위요인 차이검증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는 검사는 우울증상, 성취관련부정적 사고, 신체증상, 흥미결여, 부정적 자아상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자아상의 평균은 감소하였고($t=1.784, p>.05$) 우울증상($t=-.842, p>.05$) 및 흥미감소는($t=.408, p>.05$) 평균이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2) 특성분노의 하위요인 차이검증

청소년의 특성분노를 측정하는 검사는 분노기질과 분노상황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기질($t=-.845, p>.05$)과 분노상황($t=-1.164, p>.05$) 두 하위 요인 모두에서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3) 분노표현의 하위요인 차이검증

청소년의 분노표현을 측정하는 검사는 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사전-사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표출($t=-1.633, p>.05$) 분노억제($t=-2.047, p<.05$) 분노통제($t=-6.11, p>.05$) 모두에서 평균이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분노억제에서만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표14>에 제시되어 있다.

4.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검증

가설 3.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우울, 불안, 분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 변화는 추후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우울, 불안, 특성 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료집단을 대상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추후검사는 치료 종결 직후 실시된 사후검사 이후 3주 후에 실시되었으며 지속성 검증을 위해 사전-추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하였다. 이 결과는 <표1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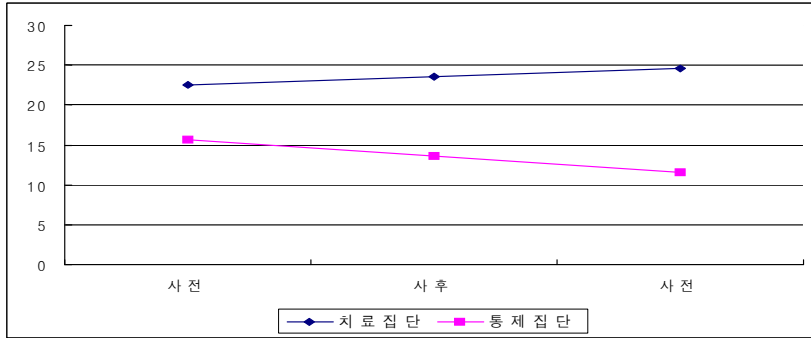
<표15> 효과의 지속성 검증

	사전 M(SD)	추후 M(SD)	t
불안	55.1(2.09)	53.6(3.29)	.585
우울	22.6(2.33)	23.9(2.74)	-.584
우울증상	7.0(1.23)	7.9(1.34)	-.842
성취관련부정적사고	6.5(.90)	6.6(.77)	-.107
신체증상	1.2(.35)	2.3(.36)	-2.012
흥미결여	3.5(.56)	3.3(.63)	.408
부정적자아상	4.4(.45)	3.5(.76)	1.784
특성분노	27.8(1.36)	30.5(2.02)	-1.445
분노기질	14.6(1.00)	15.6(1.09)	-.845
분노상황	13.2(.95)	14.9(1.27)	-1.164
분노표현	34.7(2.71)*	41.2(3.03)	-2.825
분노표출	18.9(1.74)	22.6(1.58)	-1.633
분노억제	18.9(4.79)	20.6(1.24)	-2.047
분노통제	17.0(1.26)	17.7(1.27)	-.611
자아존중감	29.2(2.86)*	35.4(2.64)	-3.155

* $p < .05$, ** $p < .01$

1) 치료집단의 우울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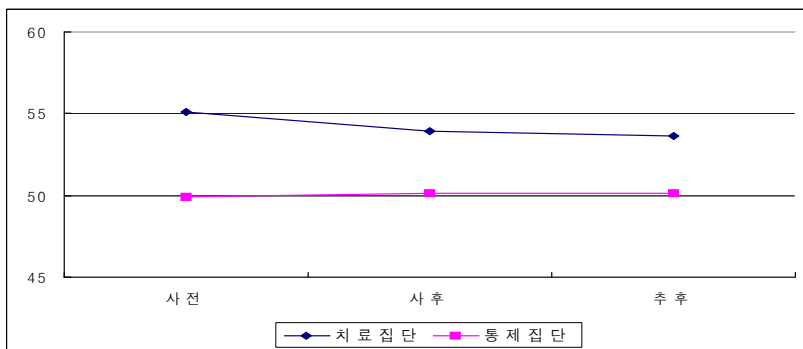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료집단의 우울 검사 사전-추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우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 = -.584, p > .05$). 치료집단의 예서의 사전-사후-추후의 변화가 [그림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6] 우울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2) 치료집단의 불안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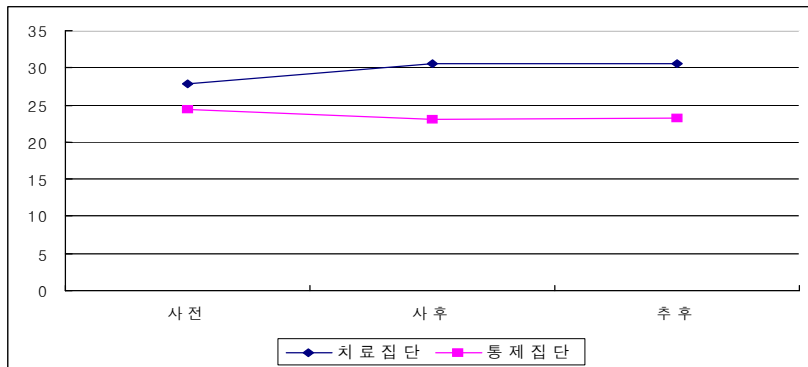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료집단의 사전-추후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 = -.585, p > .05$). 치료집단의 예서의 사전-사후-추후의 변화가 [그림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7] 불안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3) 치료집단의 특성분노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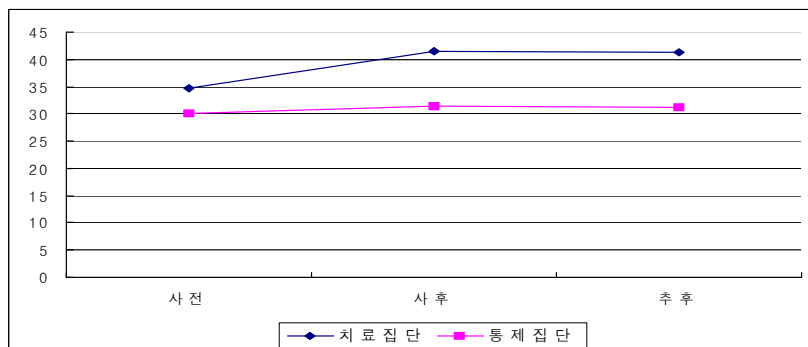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료집단의 사전-추후 차이검증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특성분노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1.445, p>.05$). 치료집단의 분노표현에서의 사전-사후-추후의 변화가 [그림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8] 특성분노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4) 치료집단의 분노표현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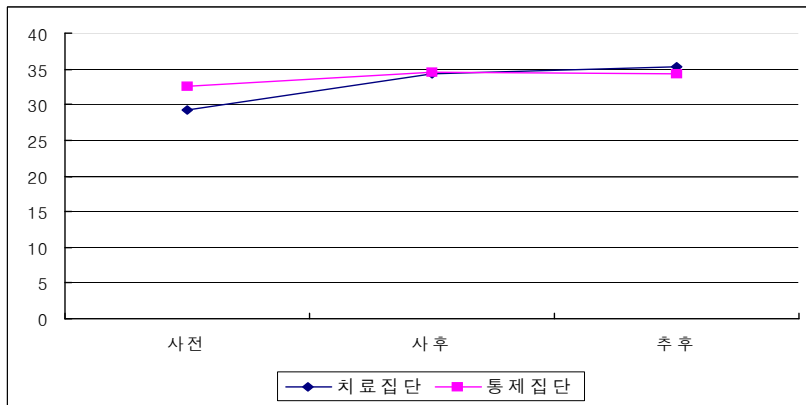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료집단의 사전-추후 차이검증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분노표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2.825, p<.05$). 사전-사후-추후변화가 [그림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9] 분노표현의 사전-사후-추후 점수변화

5) 치료집단의 자아존중감수준 효과의 지속성 검증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료집단의 사전-추후 차이검증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t = -3.155, p < .05$). 사전-사후 차이검증에서도 평균이 증가하였으므로 효과가 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치료집단의 자아존중감에서의 사전-사후-추후의 변화가 [그림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10]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후

VI.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우울, 불안, 특성분노와 분노표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감각 및 환경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의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중기에는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자각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 폭력 가정 내에서 형성되었던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접촉, 표현하고 집단원간의 지지와 신뢰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후기에는 버려진 물건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서로에게 feed-back을 해주는 집단 작업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고 서로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작업으로 마무리하였다.

2)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울, 불안, 특성분노, 분노표현,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 척도를 이용하였다.

첫 째로 계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우울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제집단은 평균이 다소 감소한 반면 치료집단은 오히려 평균이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추후검사의 결과에서도 이렇듯 상승된 우울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집단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다루는 경험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노와 우울이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면, 본 집단치료시 분노를 자각하고 표현하는 작업이 많았던 것도 치료집단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권영애 2005, 배경숙 2004).

두 번째로, 계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불안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제집단은 평균이 다소 증가한 반면 치료집단은 평균이 감소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추후검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지속되고 있어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불안 감소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계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특성분노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불안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제집단은 평균 변화가 없는 반면, 치료집단은 평균이 증가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추후검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분노를 다루는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과제로 인해 자신의 분노에 대한 자각과 접촉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로, 계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분노표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료집단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평균이 증가하였다. 추후검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지속되고 있어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분노 표현을 증가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집단경험을 통해 그동안 억압되었던 자신의 분노 문제를 자각하고 다루는 경험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로,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료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불안 점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에서,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은 평균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치료집단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검증되었다. 추후검사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는 지속되고 있어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결과를 통해 모든 가설이 지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게슈탈트 예술치료가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자각하고 표출함과 동시에 집단원간의 긍정적인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우울감과 분노표현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수용해주고, 집단원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서로간의 지지체계가 되어주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긍정적인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해주어, 안정감 있고 관심을 충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었고, 행동 따라 하기 등의 신체동작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느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 줌으로써 재미있게 관심 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짝을 지어 대화하는 연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나 이해결 과제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표출하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분노를 보다 잘 조절하며 언어적으로 표현하며 교류하는 모습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 기말고사가 진행되었고,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은 인문계와 상업계의 진로 결정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 초조감이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지금-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신과 타인의 상호교류를 형성하는 집단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외적인 스트레스들을 극복해 나갔으며 내적인 갈등을 해결해 나갔다. 청소년들의 집단 작업에서는 그 날 그 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지지와 수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관련특별법이 통과 되고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 되는 가운데에서도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가정 폭력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에 의해 폭력을 당함으로써 인해 많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성장기에 받아야할 부모의 사랑과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해 비행의 길로 빠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응 문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우울, 불안, 특성분노를 감소시키고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을 위한 게슈탈트 예술치료는 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 대한 예방적·치료적 접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안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이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 거주하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청소년의 우울, 불안, 특성분노가 높을 것이고,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은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더욱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비교집단으로 일반 청소년 집단을 선정하여 비교가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비교집단의 부재로 연구의 결과가 게슈탈트 예술치료 고유의 효과인지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 고유의 효과를 입증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석준(2007). 청소년 가출과 비행청소년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인천대 교육대학원.
- 강지현(2005). 집단치료놀이가 가정폭력 아동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 고미선(2004).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부부폭력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서울대 학원.
- 구은영(2006).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서의 자녀의 적응과 개입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 기현철(2006). 가출청소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 김경록(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석사논문.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 김근정(2004). 빈곤지역 가정폭력 경험 아동이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공회대 대학원.
- 김남현(2005). 가정폭력과 대중매체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 김명진(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 대학원.
- 김순자(2006). 가정폭력 학생의 성격변화 형성에 관한 상담사례연구. 석사논문. 대불대 교육대학원.
- 김왕열(2006).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남부대 경찰행정대학원.
- 김재영(2005). 실업계 고교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에 관

- 한 연구. 석사논문. 대전대 교육대학원.
- 김해진(2006). 학교폭력 가해중학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부경대 교육대학원.
- 김효진(2004). 초등학생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석사논문. 숙명여대 대학원.
- 남승미(2005). 중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이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 박경진(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대구대 대학원.
- 박남동(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석. 석사논문.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
- 박미선(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정신건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 대학원.
- 박미주(2002).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 사회복지 대학원.
- 석효정(2006).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논문. 영남대 환경 보건 대학원.
- 송진희(2005).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원광대 보건환경 대학원.
- 신남순(2004).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대전대 경영행정 사회복지대학원.
- 안정란(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 대학원.
- 어유경(2005). 취약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연세대 대학원.
- 유제용(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과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 영향. 석사논문. 한서대 교육대학원.
- 이덕진(2007).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남부대 사회복지대학원.
- 이소희(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군산대 교육대학원.
- 이금형(2002).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석사논문. 가톨릭대 대학원.
- 이인순(2005).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경남대 행정 대학원.
- 이주연(2007). 가정폭력 쉼터 이용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 이진경(2007). 예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분노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임희복(2003). 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 교육대학원.
- 전윤경(2006).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쉼터 아동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논문. 명지대 대학원.
- 정인숙(2003).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대학원.
- 조춘범(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연세대 사회복지 대학원.
- 주현정(200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아동이 이상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 최규영(2006).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 최순화(2002). 가정폭력이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 사회복지 대학원.
- 최인순(2005). 아동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대학원.
- 최은영(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원광대 대학원.
- 최정환(2005).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의 현실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신학대상담대학원.
- 최종술(2005). 가정폭력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위덕대 사회복지 대학원.
- 최지현(2005).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최효진(2007).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피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연구. 석사논문. 동덕여대 여성개발대학원.
- 한상만(2006).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 문제와 사회연계를 통한 치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 한혜정(2006).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 홍봄내(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한림대 대학원.
- 황길선(2002).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초당대 산업대학원.
- 황인순(2005).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아내학대와 자녀학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mendt–Lyon, N. (2001). Art and creativity in gestalt therapy. *Gestalt Review*, *5*(4), 225–248.
- Anderson, M. P., & Borkovec, T. D. (1980). Imagery processing and fear reduction during repeated exposure to two types of phobic imagery. *Behavior Research & Therapy*, *18*, 537–540.
- Barbara, E. (1979). *Personality Theories*. Boston: Houghton Mifflin.
- Bohart, A. C. (1977). Role playing and interpersonal–conflict redu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15–2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43–349.
- Ciocihetti, D. & S. L Toth(ed.)(1991).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isfunction: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Hillsdale. NJ: Erlbaum.
- George, R.L., & Cristiani, T.S.(1995).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Greenberg, L. S., & Webster, M. C. (1982). Resolving decisional conflict by gestalt two–chair dialogue: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5), 468–477.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 Disease*, 60, 5–14.
- Jaffe, P. et al. (1986). Family Violence and Child Adjust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girls' and Boys' behavioral sympto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75–76.
- Kauffman, J. 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5th ed.)*. N.Y.: Macmillan.
- Kipper, L., & Gilade, M. (1978). The effect of psychodrama on test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1), 17–27.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eslie G. Eaton, Kimberly L. Doherty and Rebekah M. Widrick. (2007). A review of research and methods used to establish art therapy as an effective treatment method for traumatized children. *The Arts in psychotherapy*.
- Mallay J. N. (2002). Art therapy, an effective outreach intervention with traumatized children with suspected acquired brain injury. *The Arts in Psychotherapy*, 29(3), 159–172.
- Melnick, J. (1980). Gestalt group process therapy. *Gestalt J.*, 3:86–96.
- Miller, M. V. (1990). Toward a psychology of the unknown. *The Gestalt Journal*, 13(2), 23–41.
- Oaklander. V. (1997). The therapeutic proces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Gestalt Review*, 1(4), 292–31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Passons, W. (1975). *Gestalt approaches in counseling*. New York: Holt, Rinehard and Winston.

Perls, F. S., Hefferline, R. E., & Goodman, P. (1951/1994).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the human personality*. New York: The Gestalt Journal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51. New York: Julian Press.

Reynolds, W. M(ed.) (1992).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Wiley.

Schlesinger, B. (1969). *The one-parent family: perspectives and annotated bibliography*. NY: Macmillan.

Smith, V. E. (1994). *The experience of women who are aggressive: an analysis of incarcerated women from a gestalt therapy theory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on Institute.

Straus, M, A. and gell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Terry, J. Tibbetts and Beth Stone. (1990). Short-term art therapy with seriously emotionally disturbed adolescents. *The Arts in Psychotherapy*, 17(2), 139–146.

Zimmerman, J. (1979). A case study in self-determinism: a model for client-assisted self-help. *The Psychological Record*, 29, 201–217.

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 of Gestalt Group Therapy For Adolescent with Domestic Violence

Kim, Hees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ing a program which applied Gestalt group therapy for Adolescent who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and verifying that this program was helpful in reducing these adolescents, depression, anxiety, anger and self-esteem.

Subjects of the study were adolescent who are living in welfare facilities in Gyeonggi-d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consisted of ten children.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en times, twice a week, and every experiment took ninety minutes, and we used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 Anger-trait Scale, Anger-expression Scale and Rogenber self-esteem Scale to prov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As a result, anxiety operating the program were reduced, but

statistically, it was not that significant. Depression, Anger-trait, Anger-expression were increased, but statistically, it was not that significant. Self-esteem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is project were significant; scores were considerably increased.

Accordingly, this project had constant effectiveness on Adolescent with Domestic Viol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e way how to apply Gestalt art therapy for Adolescent with Domestic Violence.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this therapy was helpful to increased self-esteem these Adolescent with Domestic Violence.

부 록

부록 1. 질문지

- 1) 가정폭력 경험 척도
- 2) 우울척도(CDI)
- 3) 불안척도(STAI)
- 4) 특성분노 척도(STAXI-K)
- 5) 분노표현척도(STAXI-K)
- 6) 자아존중감 척도(SEQ)

부록 2.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일지

질 문 지

청소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질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한 검사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시험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체크해 주면 됩니다.

만일, 본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시고
한 문항도 빠트리지 말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또래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통계 처리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질문지 작성을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2007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정 규 / 연구자 김 희 성

1. 다음은 여러 분들이 가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 번	1달에 1~2 번	1주에 1~2 번	거의 매일
1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2	물건이나 살림을 부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3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4	밀거나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5	손으로 아무데나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6	뺨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7	흉기로 위협하거나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8	심하게 때려서 상처 입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0	1	2	3	4

번호	문항 나는 부모님이나 양육자로부터,	전혀 없다	1년에 1~2 번	1달에 1~2 번	1주에 1~2 번	거의 매일
9	너를 괜히 낳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10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며 꾸중을 들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11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과 화풀이를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2	사소한 잘못에도 지나칠 정도의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	0	1	2	3	4

번호	문항 나는 부모님이나 양육자로부터,	전혀 없다	1년에 1~2 번	1달에 1~2 번	1주에 1~2 번	거의 매일
13	너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0	1	2	3	4
14	말로해도 될 일을 매로 맞은 적이 있다	0	1	2	3	4
15	나를 밀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0	1	2	3	4
16	아무데나 사정없이 손으로 꼬집힌 적이 있다	0	1	2	3	4
17	뺨을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0	1	2	3	4
18	내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0	1	2	3	4
19	흉기로 위협하거나 맞은 적이 있다	0	1	2	3	4
20	지나치게 맞아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0	1	2	3	4
21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2	몸이 많이 아파도 돌보아 주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3	이유 없이 결석해도 상관하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4	어떤 친구를 사귀어도 상관하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5	가출을 하여도 찾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6	음주, 흡연을 해도 상관하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7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도 상관하지 않은 적이 있다	0	1	2	3	4

2. 다음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묻는 3개의 보기로 구성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3개의 보기를 읽어 보시고 최근(2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나는 가끔 슬프다 ②나는 자주 슬프다 ③나는 항상 슬프다
2	①나에게는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②나는 일이 제대로 되어갈지 확신할 수 없다 ③나에게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 갈 것이다
3	①나는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웬만큼 한다 ②나는 잘 못하는 일이 많다 ③나는 모든 일을 잘 못 한다
4	①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②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도 더러 있다 ③나에게는 어떤 일도 전혀 재미가 없다
5	①나는 언제나 못됐다 ②나는 못됐을 때가 많다 ③나는 가끔 못됐다
6	①나는 가끔씩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②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자주 걱정한다 ③나에게 꼭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다
7	①나는 내 자신이 싫다 ②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③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8	①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이다 ②잘못되는 일 중 내 탓인 것도 많다 ③잘못되는 일은 대체로 내 탓이 아니다
9	①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나는 자살을 하고 싶다

10	<p>①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p> <p>②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p> <p>③나는 때때로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p>
11	<p>①이일 저일로 해서 늘 성가시다</p> <p>②이일 저일로 해서 성가실 때가 많다</p> <p>③간혹 이일 저일로 해서 성가실 때도 있다</p>
12	<p>①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p> <p>②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p> <p>③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늘 싫다</p>
13	<p>①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p> <p>②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p> <p>③나는 쉽게 결정을 내린다</p>
14	<p>①내 외모는 괜찮은 편이다</p> <p>②내 외모 중에는 못생긴 부분이 약간 있다</p> <p>③나는 정말 못 생겼다</p>
15	<p>①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p> <p>②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한다</p> <p>③나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학교 공부를 해낼 수 있다</p>
16	<p>①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p> <p>②나는 잠들기 어려운 밤도 있다</p> <p>③나는 잠을 잘 잔다</p>
17	<p>①나는 가끔 피곤하다</p> <p>②나는 자주 피곤하다</p> <p>③나는 항상 피곤하다</p>
18	<p>①나는 늘 밥맛이 없다</p> <p>②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많다</p> <p>③나는 밥맛이 좋다</p>
19	<p>①나는 몸이 아플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p> <p>②나는 몸이 아플까봐 걱정할 때가 많다</p> <p>③나는 몸이 아플까봐 항상 걱정한다</p>

20	<p>①나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p> <p>②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p> <p>③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p>
21	<p>①나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p> <p>②나는 가끔씩은 학교 생활이 재미있다</p> <p>③나는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때가 많다</p>
22	<p>①나에게는 친구들이 많다</p> <p>②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p> <p>③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p>
23	<p>①나의 학교 성적은 괜찮다</p> <p>②나의 학교 성적은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p> <p>③내가 전에는 잘했던 과목 성적이 요즘 떨어졌다</p>
24	<p>①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없다</p> <p>②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p> <p>③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p>
25	<p>①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p> <p>②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p> <p>③분명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p>
26	<p>①나는 누가 시킨 일을 대체로 한다</p> <p>②나는 누가 시킨 일을 대체로 하지 않는다</p> <p>③나는 누가 시킨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p>
27	<p>①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p> <p>②나는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p> <p>③나는 사람들과 늘 싸운다</p>

3. 다음의 문장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분이 좋다	1	2	3	4
2	나는 쉽게 피로해 진다	1	2	3	4
3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1	2	3	4
4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한다	1	2	3	4
5	나도 마음을 빨리 정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다	1	2	3	4
6	나는 마음이 놓인다	1	2	3	4
7	나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나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어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9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한다	1	2	3	4
10	나는 행복하다	1	2	3	4
11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1	2	3	4
14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울적하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18	나는 실망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1	2	3	4
19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1	2	3	4
20	나는 요즈음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만 하면 긴장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4.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V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평소에 일반적으로 나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미가 급하다	1	2	3	4
2	불같은 성격을 지녔다	1	2	3	4
3	격해지기 쉬운 사람이다	1	2	3	4
4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일이 늦어지게 되면 화가 난다	1	2	3	4
5	일을 잘하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분통이 터진다	1	2	3	4

번호	문항 평소에 일반적으로 나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7	화가 나면 욕을 한다	1	2	3	4
8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되면 격분한다	1	2	3	4
9	내 일이 막히면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1	2	3	4
10	일을 잘 했는데도 나쁜 평각을 받게 되면 격분을 느낀다	1	2	3	4

5.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V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를 참는다	1	2	3	4
2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3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4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	1	2	3	4
5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1	2	3	4
6	사람들을 피한다	1	2	3	4
7	소리를 지른다	1	2	3	4
8	냉정을 유지한다	1	2	3	4

번호	문항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문을 팡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1	2	3	4
10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1	2	3	4
11	나의 행동을 자제한다	1	2	3	4
12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	1	2	3	4
13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4	목소리를 높인다	1	2	3	4
15	화가 나더라도 침착할 수 있다	1	2	3	4
16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	1	2	3	4
17	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1	2	3	4
18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진정을 빨리 회복한다	1	2	3	4
19	욕을 한다	1	2	3	4
20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21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는 편이다	1	2	3	4
22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1	2	3	4
23	화난 표정을 짓는다	1	2	3	4
24	화난 감정을 자제한다	1	2	3	4

6. 다음의 문항을 읽고 최근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느낀 정도를 잘 나타내는 문항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적어도 남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	2	3	4	5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을 위한 게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

1 회기 : 소개 및 집단그림 그리기

목표	• 집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동기 향상		
	• 집단 내 평등한 대화적 관계 형성		
	• 집단원간 상호작용의 증진 및 친밀감 형성		
활동내용	Intro	게슈탈트 예술치료 집단 소개	10분
		별칭 짓고 자기소개	20분
	work	집단그림	30분
		feed-back	2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이름표, 매직, 싸인펜, 크레파스, 색연필, 전지 2장,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

1. 게슈탈트 예술치료 집단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치료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게슈탈트, 집단상담, 예술치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2. 별칭 짓고 자기소개하기
 - 예시를 보고 각자 이름표에 자신의 별칭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는다
 - 순서 없이 원하는 사람부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다
3. 집단그림
 - 음악을 들으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기분, 욕구를 자각한다.
 - 지금-여기에서 자각된 것들을 이야기 나누어 본다.
 - 두 조로 나누어 둥글게 앉는다.
 - 음악을 들으며 말을 하지 않고 조원들의 감정, 기분 등을 느껴본다.
 - 지금-여기에서 느껴진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다른 조의 그림을 관람하고 피드백을 한 뒤 조별 발표를 한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프로그램의 진행후기

1. 친구와 친해지고 싶을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러한 행동들을 통틀어 우정이나 친밀감에 대한 욕구 즉, 게슈탈트라고 한다는 설명을 하자, 중학생인 집단원들은 '아~' 머리를 끄덕이며 쉽게 이해를 하였다.

2. 별칭을 짓는 모습들이 진지해 보였고, 소개를 할 때에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별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였다. 나이키는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자신을 소개하여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왕뚜껑과 골룸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반면 킹혜선과 나는T다 및 짱뽕은 비교적 수줍은 듯 자주 웃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소개를 하였으나 기분은 좋은 얼굴이었다.

3. 집단그림을 위한 음악듣기와 접촉활동에서는 모두들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팀으로 나뉘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말을 금지하는 주의를 주긴 하였으나 서로 눈짓과 웃음이 오갔고 전반적으로 매우 활기차고 즐거운 상태에서 함께 작업을 하였다. feed-back을 하는 동안에도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별스러운 말이 아님에 불구하고 서로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A조에서는 나이키가 도화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활발하게 그림을 그려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그 왜 다른 아이들은 조그만 그림을 한 두 개 정도 그릴 뿐이었으나 나이키가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듯 서로 웃음을 참지 못해 여기저기서 킥 킥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B조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각자의 영역에서 그림을 그렸으나 주로 없음이 그리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따라 그리거나 지켜보며 즐거워하였다.

4. 소감나누기

매우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소감이 나누어졌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였다.

2 회기 : 환상여행-어릴 적 살던 집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억압된 감정을 자각하여 현실과의 접촉을 증진시킴으로 미해결 과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움 	
	Intro	10분
활동내용	지금 상태,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작업	10분
	환상여행-어릴 적 살던 집	10분
	work 이야기 나누기	50분
준비물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도화지, 싸인펜, 크레파스,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 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흐름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고,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 주도성을 경험하게 한다.

3. 환상여행 - Guided Fantasy Trip

-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지시에 따라 어릴 적 살던 집을 떠올린다
- 집의 모양, 방의 위치, 부엌, 잠을 자던 곳에 들어가 보고,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을 떠올려 보며,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장소와 가장 싫어했던 장소를 각각 들어가 본다.
- 눈을 뜨고 어릴 적 살던 집의 평면도를 그린다. 가장 싫었던 곳과 좋았던

곳에 표시를 한다.

- 평면도를 보면서 가장 싫었던 곳과 가장 싫었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어린 시절 집을 다시 보니 기분이 어떨지?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 있는지?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프로그램의 진행후기

1. 지금 기분 나누기

여학생들은 프로그램 시작 15분전에 와서 재잘거리며 집단에 대한 기대로 즐거운 표정들었으나, 남학생들은 집단이 시작하고 5분이 지나서야 어슬렁 어슬렁 집단에 참여를 하였다. 집단이 시작되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생겼으나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자유롭게 자기 기분이나 상태를 열어 보였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몸을 푸는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 하였으나 많은 흥미를 보이며 즐겁게 참여를 하였다. 킹혜선과 나는T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였다.

3. 환상여행 - Guided Fantasy Trip

과거 살았던 곳을 떠올리는 작업에서는 다들 숙연해져서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고, 나이키와 왕뚜껍은 회상단계에서부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이 둘이 차례로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많이 울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차분하게 자신들이 가장 싫어했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평소 작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거리며 말을 해서 또래들의 짜증을 사는 스카이가 러브가 웬일인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세 번째로 손을 들고 가장 싫어했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스카이 러브 : 여...여기가...베란다...하구...부엌하구...제일 싫은 곳이에요.

치료자 : 그러네요. 베란다 하구 부엌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스카이 러브 : 여..여기서...아...아빠하구...엄마하구...싸웠거든요.

치료자 : 베란다하구 부엌에서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봤었던 거네요?

스카이 러브 : 부엌에서는...아빠가 칼 들고.....

치료자 : 아빠가 칼을 들었다면 많이 무서웠겠어요.

스카이 러브 :

치료자 :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는...많이 무서웠고...

스카이 러브 : (눈을 동그랗게 뜨며 치료자를 한 참을 쳐다 보았다)저는...방안에서 본 건데...무서워서...방안에 있었어요.

치료자 : 무섭고 두려운 마음..저도 알 것 같아요.

스카이 러브 : (양손으로 눈물을 번갈아 닦아 내었다)

치료자 :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 보았어요?

스카이 러브 : (머리를 양쪽으로 가로 저었다)

치료자 : 우리들 앞에서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어때요?

스카이 러브 : 나만...그런 줄 알았는데...카스테라님도 그렇다니까...나만 그런게 아니구나.....그리구 속에 있던 거를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좋아요. 시원해진 것 같아요.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이후 짧은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브는 집단 내에서 호흡이 길어졌고 목소리가 커졌으며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의 눈을 비교적 오래 응시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4. 소감나누기

나이키는 과거 괴로웠던 일들을 떠올리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 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다며 치료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3 회기 : 즉흥연주

목표	• 긴장 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다양한 감정을 자각하여 현실과의 접촉을 증진시킴으로 미해결 과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움		
활동내용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작업	10분
	work	즉흥연주	6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북 2개, 장구 2개, 큰 플라스틱 통 4개, 소고 4개, 말렛 6개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 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흐름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고,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 주도성을 경험하게 한다.

3. 즉흥연주

- 악기탐색 - 자유롭게 악기를 만지고 두드려 볼 수 있게 시간을 준다.
- 신호선정 - 소란스러움을 방지하고 원활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말렛을 두 번 치면 북채 및 장구채를 바닥에 내려놓고 지시를 들으며, 한 번 치면 즉흥으로 연주를 하는 신호를 정한다.
- 악기선택 -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악기를 하나씩 선택을 하게 한다.
- 분노연주 - 자신이 '화'가 나는 경우를 떠올리고 말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구, 북, 소고, 플라스틱 통 등의 악기로 자신의 감정을 연주해 본다.
- 이야기 나누기 - 연주를 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슬픔연주 - 자신이 '슬픔'을 느끼는 경우를 떠올리고 말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구, 북, 소고, 플라스틱 통 등의 악기로 자신의 감정을 연주해 본다.
- 이야기 나누기 - 연주를 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기쁨연주 -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경우를 떠올리고 말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구, 북, 소고, 플라스틱 통 등의 악기로 자신의 감정을 연주해 본다.
- 이야기 나누기 - 연주를 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프로그램의 진행후기

1. 지금 기분 나누기

왕뚜껑과 골룸 및 추리닝은 집단에 오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다는 말을 하였고, 나이키는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고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였다. 남학생들은 여전히 집단에 5분~10분 정도 늦게 들어 와서 지금 기분 나누기에 제대로 참여가되지 않은 채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자기 개방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았다.

2. 신체작업

신체작업에 익숙한 태도를 보이며 서로 자신이 주목 받고 자신의 동작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에 많은 흥미와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진행이 보다 원활해 졌다.

3. 즉흥연주

좀처럼 언어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해 집단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악기를 이용하니 보다 활발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 특히 골룸은 나이키가 자신의 분노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자 그에 대한 feedback을 자발적으로 악기로 전달하였고, 추리닝이 슬픈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자 악기로 추리닝에게 feedback을 해주다가 동시에 언어적 반응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평소 부끄럼을 많이 타서 집단 내에서 말이 전혀 없던 킹혜선도 악기를 이용하자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양 볼이 빨개질 정도로 감정에 몰입되어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장뽕의 경우, 지시에 따라 악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장구 장단을 연습하는 데 더 몰두를 하였는데, 아마도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거북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걱정되어 집단원들의 눈치를 많이 살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소감나누기

마음에 있는 걸 속 시원히 쏟아 놓을 수 있어 좋으며, 노래 부르기가 취미인 왕뚜껍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였다. 추리닝과 나이키는 아직도 마음에 남은 것이 많으며 좀 더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집단을 나가면 다시 답답해 질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치료자는 감정의 카타르시스 보다는 서로 진실되게 만나는 대화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집단에서는 그러한 연결성을 경험하는 것이 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4회기 : 나의 분노 표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분노 감정에 대한 접촉과 분노감정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체험해 본다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작업 10분
활동내용	work	이야기 나누기 30분
		나의 분노 표현 3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신문지, 베개, 국자, 주걱, 베드민턴채, 플라스틱 통, 빵칼.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 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흐름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고,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 주도성을 경험하게 한다.

3. 이야기 나누기

- 리더는 집단원들이 화가 날 때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고, 어떤 것들이 있나 이야기를 나눈다.

- 화가 나는 상황, 화가 나면 신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4. 빈의자 - 나의 분노 표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운데 나와서 가장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고 베개치기, 신문지 찢기, 빵칼로 자르기, 풍선터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의 분노를 표현하고 그에 대해 집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5.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프로그램의 진행후기

1. 지금 기분 나누기

지난 주에 집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집단원이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밝혀져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부터 다소 갈등이 있었다. 나이키와 츄리닝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집단원이 또 밖에 나가서 자기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 참여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작업에 들어가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 분노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하는 비교적 간단한 패턴의 활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원들은 번번이 즐거워하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대하고 매번 다른 동작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이야기 나누기

리더가 화이트 보드에 집단원들이 화가 날 때 하는 말-즉 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자 집단원들은 다소 놀라기는 하였으나 곧 키득거리며 좋아하였고 집단 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몰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 말-욕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마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매우 진지하게 느낌이나 감정을 탐색하기도 하였다.

화가 나는 상황과 화가 날때의 신체 반응에 대한 탐색에서는 집단원들이 자신의 경우를 떠올리며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한 화나는 상황과 자신의 신체 반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꼭 참는 것과 때려주는 것 외에는 알지를 못하였다. 리더가 화를 표현해야 하는 이유와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자 자유스럽게 여러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4. 나이키가 제일 먼저 나와서 최근 학교에서 다툼 친구와의 이야기를 한 뒤 베개를 골라 손으로 쳤는데,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처음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곧 “나는 너에게 화가 났어!” 라고 말하며 베개를 발로 뺨 걷어차 버렸다. 추리닝은 엄마에게 화가 난다며 나이키가 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여서 그런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며 신문지를 골라 벽벽 찢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에서 늘 친구들을 때리고 싸움을 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는 없음은 오히려 분노를 표현하는 집단원들을 무섭다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 작업 후반에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더니 마구 분노 감정을 표출하였다.

치료자 : 플라스틱을 두드리는 동안...어떤 것이 떠올랐지?

없음 : 제일 화가 났을 때요.

치료자 : 그게 언제이지?

없음 :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치료자 : 초등학교 3학년 때?

없음 : 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치료자 : 없는 사람 취급이라는 건 어떻게 한 걸 말하는 걸까?

없음 : 선생님이요.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는 집이 없다구. 보육원에 사는 아이라구. 그래서 그 때부터 친구들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체도 안하고...

치료자 : 아, 아예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없음 :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매일 울었어요.

치료자 : 매일 울 정도로 슬펐구나...

없음 : 예. 그래서 철로에, 뛰어들고 싶었어요.

치료자 :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구나..

없음 : 그래서, 그 때부터 아무런 감정 없이 애들 잡아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때부터 계속 화가 난 상태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무조건 때리구, 눈 앞에 거슬리면 아무 이유 없이 감정 없이 그냥 막 때려요. 여자애도 때리구, 다 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요.

치료자 : 그랬구나, 그래서 별칭도 없었구나...

없음 : 예..애들 때릴 때에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없음이의 이러한 자기 개방에 대해 집단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에 대한 분노,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에 공감할 하는 반응들이 있었고, 그 때 죽지 않은 것에 대해 잘 했다는 반응도 나왔으며, 평소에 잘 때려서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상처가 많았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없음이가 계속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집단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5. 소감나누기

계속 장난치는 식으로 말을 하며 집단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해 오던 쪽대머리가 오늘은 참 의미 깊은 날이었다는 소감을 나누었고, 나이키는 선생님이 우리가 쓰는 욕을 그대로 받아 적는 모습이 의외였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을 하였다.

5 회기 : 찰흙작업(1)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현재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고 표현한다. • 가족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접촉하고 해소할 수 있는 힘을 북돋운다. 		
	활동내용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work	신체작업 10분
준비물	work	찰흙 접촉 6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찰흙, 김장비닐(벽에 붙일것, 개인용작은 것), 신문지, 물티슈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 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흐름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고,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 주도성을 경험하게 한다.

3. 찰흙 접촉

- 각자 6개의 찰흙을 뭉친 덩어리를 가지고 눈을 감은채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리더의 지시에 따라 찰흙의 느낌에 주목해 본다.

- 눈을 뜨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 꼬집고 찌르고 철썩 때리거나 찢고 뭉치는 활동을 하여 찰흙의 느낌을 충분히 경험한다.

- 각자 자유롭게 바닥에 내리던지고 뭉치고 벽에 던지는 등의 보다 활동적인 접촉을 한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프로그램의 진행후기

1. 지금 기분 나누기

왕뚜경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요즘 변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요즘 더 많아졌다는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였다. 스카이 러브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요즘 들어 갑자기 얼굴도 환해지고 성격도 밝아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을 하며 흐뭇해하였다. 나이키는 화가 나도 그전에는 말도 못하고 참다가 한 대씩 때려 주었는데, 요즘에 무엇이 화가 나는지

말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없음이는 자신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나이키나 왕뚜껍이 없음이가 요즘 친구들을 잘 때리지 않는다면, 전에 같으면 때렸을 상황에서 없음이가 그냥 웃으며 지나가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2. 신체작업

특히 없음이가 신체작업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으로 꼭 한 가지씩 매 번 다른 동작을 미리 생각해 오곤 한다. 나는 T다는 여전히 부끄러워 하지만, 킹혜선과 장뽀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에도 편안한 모습을 보이며 조금씩 큰 동작을 선 보이고 있다.

3. 찰흙 접촉

기분이 좋아서 집단을 시작할 때에는 매우 소란하였으나 찰흙을 나누어 주자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지시에 따라 찰흙작업에 깊이 몰입하였다.

나이키와 추리닝 그리고 나는 T다가 손과 몸 전체를 사용하여 가장 활발하게 작업을 하였다. 왕뚜껍과 킹혜선 그리고 스카이 러브는 찰흙을 조심 조심 다루는 편이었으며 장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자주 두리번 거리느라 자신의 작업에 깊이 몰입하지는 못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골똥이었는데, 찰흙을 만지지 못하고 엄지와 검지 두 개로만 다루었으며 손바닥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털어내느라 거의 작업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원들은 찰흙을 뭉치거나 꼬집거나 찢는 등의 활동보다는 커다란 비닐이 깔린 바닥이나 벽에 던지는 것에 열광을 하였는데, 자신의 전체 몸을 이용해서 찰흙을 던졌고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평소 집단에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킹혜선이나 나는 T다는 양 볼이 발갛게 될 정도로 집중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살피는 장뽀도 주위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작업에 몰두하였다.

4. 소감나누기

찰흙을 만지고 던지는 활동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소감들이 나누어졌다.

6 회기 : 찰흙작업 (2)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현재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고 표현한다. • 폭력이 있었던 가족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접촉하고 해소한다.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작업 10분
	활동내용	work
		이야기 나누기 3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찰흙, 신문지, 비닐, 물티슈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 성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3.찰흙 작품

- 찰흙으로 부모님과 관련된 작품을 만들어 본다
- 작품의 이름을 짓고, 작품을 만들고 난 후 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본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1. 지금 기분 나누기

비교적 원활하게 자기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이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2. 신체작업

여전히 없음이 제일 좋아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 번 장난을 심하게 치는 행동으로 진행을 끊던 숙대머리가 진지하게 임하여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매 회기 같은 동작을 하는 집단원은 거의 없고 새롭고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하였으며, 무엇보다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흡족해 하였다.

3.찰흙 작품

부모님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만든 것은 스카이 러브와 장뽕 뿐이었고 대부분 부모님 한 쪽 만을 만들었는데, 나이키는 작품을 만들다가 화가 나는지 한 뭉텅이로 몽개버렸고, 추리닝은 돌탑처럼 쌓아 올렸다.

나는T다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다시 돌려 부모님들이 화목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표현하였으며, 스카이 러브는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과 침대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부모님과 관련된 작품을 만들 때 보다, 작품과의 대화 시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하였는데,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및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였고 슬픈감정들과 같은 것을 말로 대화하듯 표현하였다.

없음이는 말을 하다가 찰흙 작품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고개를 푹 떨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나이키와 추리닝도 작품과의 대화 시 분노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작품을 주먹으로 내리친뒤 크게 울으며 그동안 상처받았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킹혜선과 왕뚜껑 나는 T다와 장뽕은 직접적으로 분노감정을 표현하지는 않고 부모님에 대해 슬프고 원망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점점 슬픈감정이 접촉이 되면서 서로 끌어 안고 크게 우는 모습을 보였다. 스카이 러브와 썩대머리는 치료자에게 접근하여 그동안 부모님들이 싸웠던 모습을 목격한 것과 그와 관련된 자신의 무서움,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이야기 쏟아 놓기 시작하였다.

집단원들은 서로 서로 끌어 안거나 손을 잡아 주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신이 하기도 하며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차차로 울음이 잦아 들자 서로 무릎이 붙을 정도로 웅기 종기 모여 앉아 원이 상당히 작아지기도 하였다. 여자집단원들끼리는 우는 친구를 안아 주기도 하고 볼에 뽀뽀를 하며 쓰다듬어 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치료자와 눈이 마주치자 애네 들이 성희롱해요~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여 다 같이 와하하 웃게 되기도 하였다.

장뽕 : 이렇게 서로가 가까이 느껴지기는 처음이에요.

나이키 : 없음이가 울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평소에 애들을 잘 때려서 무섭기만 했는데, 그런 아이가 울어서 의외였어요. 그런데 좋아요.

없음 : 처음엔 혼자 조금 울고 말려고 했는데 울음이 멈추지를 않아서 너무 당황했어요. 친구들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게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는데..... 함께 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치료자 : 함께 울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없음 : 내가 그냥 좋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부모님 사랑밖에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않아서 이렇게 세상에 다른 사랑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4. 소감나누기

많이 울고 난 뒤 자연스럽게 집단이 진정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진 후라 편안해진 목소리와 맑아진 얼굴로 차분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7 회기 : 부러웠던 것

목표	• 긴장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소외된 감정, 욕구들을 접촉하여 통합을 이룬다.		
활동내용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작업	10분
	work	부러웠던 것 이야기 나누기	6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음악, 넥타이, 머플러, 앞치마, 핸드백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 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흐름이 끊어 지지 않도록 하고,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 주도성을 경험하게 한다.

3. 이야기 나누기 - '부러웠던 것'

- 부러웠던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눈다.

- 몇 가지 상황은 각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맡고 대사를 나누어 가진 뒤, 즉흥극으로 진행을 해 본다.

- 집단원의 자발적인 진행을 위해 허용적이고 자유스런 분위기를 제공한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1. 지금 기분 나누기

전 회기의 영향으로 보다 가까워진 집단원들은 프로그램 시작전에 모여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등 화기 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지금 기분 나누기도 친구간에 나누는 이야기 처럼 스스럼 없이 오고 가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2. 신체작업

나는T다와 킹혜선도 비교적 자신 있는 동작을 집단원 앞에서 취해 보일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서로 동작에 대한 feed-back을 해주기도 하였다.

3. 이야기 나누기 -'부러웠던 것'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나 졸업식 때 가족끼리 단란하게 사진을 찍는 것, 소풍 갔을 때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 것 등이 부러웠다는 이야기들이 나누어 졌고, 그 중에서 소풍가는 날을 선택하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화목하고 단란하게 김밥을 싸고 배웅을 하는 상황을 즉흥으로 만들어 보았다. 부러웠던 것이라고 해서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았고, 모두 즐겁게 자신들의 미해결된 욕구들을 유머러스한 태도로 다루게 되어서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편안하게 바라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4. 소감나누기

극을 하였던 집단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을 나누었고, 그것을 본 집단원들도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바램, 소망들을 한 번의 웃음으로 날려 버리는 경험을 통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공유한 듯하다.

8 회기 : 폐품조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장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부정적인 자신의 부분에 대한 접촉 및 체험확장 •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작업	10분
활동내용	work	폐품 조각	30분
		이야기 나누기	3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각종 폐품, 은색 금색 스프레이, 순간접착제, 풀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3. 폐품조각

- 다양한 폐품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든다.
- 폐품조각에 이름을 붙인 뒤, 작품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작품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1. 지금 기분 나누기

최근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고민과 갈등이 주요 하게 나누어졌다.

2. 신체작업

점점 다양한 신체동작 뿐만 아니라 유머스런 동작까지 취하는 집단원들이 늘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고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3. 폐품조각

나이키와 왕뚜껑은 이 것 저 것 폐품을 가져다가 마구 붙여서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없음이는 자신의 꿈인 헬스트레이너 동상을 만들었고, 추리닝은 상자와 단추를 이용해 보석함을 만들었다. 쑥대머리는 커다란 종이상자와 우유통을 연결해서 로봇을 만들었고 스카이라브는 모루와 단추를 이용해 반지를 만들었다. 킹혜선과 나는T다는 재료를 가지고 주저하며 난감해 하였으나 여러 개의 상자를 연결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골룸은 플라스틱 우유병에 모루를 꼼꼼하게 둘러서 예쁜 꽃병을 만들었는데, 혼자 힘으로 하고자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 만들고 은색 스프레이와 금색 스프레이 중 한 개를 골라 작품에 뿌렸는데, 제법 멋지게 빛나는 모습에 모두들 흐뭇해 하였다.

작품의 이름을 붙일 때 집단원들은 더욱 소중한 감정을 느꼈고, 자신이 작품이 되어 대화를 할 때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었는데 네가 멋지게 만들어 주어 고마워”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를 다시는 버리지 말아줘” 라는 말들을 하였다.

이러한 작품과 자신의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불우한 가정 환경과 불화한 부모님들의 사이에서 버림 받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도 멋지게 바뀔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다.

4. 소감나누기

의미 깊은 작업이었다는 소감이 많았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는 말들을 하기도 하였다.

9 회기 : 플라쥬

목표		• 긴장 해소 및 이완. 창의성과 주도성의 발휘	
		• 부정적인 자신의 부분에 대한 접촉 및 체험 확장	
활동내용		•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신체 작업	10분
	work	플라쥬	20분
		이야기 나누기	40분
Finish	소감 나누기	10분	
준비물	다양한 잡지, 그림, 신문, 도화지, 풀, 가위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등을 알아본다.

2. 신체작업

원으로 둘러서서 한 사람씩 몸을 풀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하면 나머지 집단원들은 그 동작을 따라한다. 매일 매일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몸을 푸는 것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3. 플라쥬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본다

4. 소감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하고 싶은 말을 나눈다.

1. 지금 기분 나누기

골룸이 학교에서 교칙을 어겨 매우 체벌을 받아 매우 의기소침하고 침울한 상태였는데도 집단에 참여를 하여 한 쪽에 누워 있었다.

2. 신체작업

최근 유행하는 개그 프로의 동작을 사용하는 집단원이 몇 명 있어서 크게 웃게 되었으나 작업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3. 플라주

작업에 많은 흥미를 보이며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뚜껍은 애기 사진과 가수 사진을 나란히 붙여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가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스카이 러브도 화장품과 미인 얼굴을 잔뜩 붙여 놓는 장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없음이는 연인과 여행을 떠나는 사진과 아기 그림을 어울리지게 만들었는데 장차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자녀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했다. 나는T다는 잡지에서 글자들을 오려 사진과 어울어 지게 작품을 완성하였는데, ‘스스로를 되돌아 보게 한 시간들’ ‘열정의 하루하루를 산다’ 는 표현으로 당당한 모습의 자신을 표현하였고, ‘오늘, 새로운 나를 만난다’ 는 글자 옆에 멋진 캐리어 우먼의 사진을 붙이고 있어 자신에 대한 희망찬 모습을 표현하였다. 여러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옆에는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 ‘함께 나누는 재미’ 라는 글자를 찾아 붙여서 집단활동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이키도 멋진 여성의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남자 사진을 통해 자신이 멋진 모습이 되고 사랑도 이루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4. 소감나누기

‘나’ 를 표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부분도 있고 특히 장래 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소감들이 나누어 졌다.

10 회기 : Feed-back & Party

목표

-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서로에 대해 장, 단점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통해 집단에서 체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하고, 집단이 끝난 뒤에도 생활에서 서로 지지하고 feed-back을 해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Intro	지금 기분 나누기	10분
활동내용	work	소집단활동	30분
		대집단활동	30분
	Finish	파티	20분
준비물	소감 나눌 종이, 펜, 풍선, 치킨, 음료수		

프로그램의 진행

1. 지금 기분 나누기

집단원들의 에너지 수준과 욕구, 기대, 전회기의 영향등을 알아본다.

2. 소집단 활동 (3그룹)

• 상대방의 좋은 점 3가지와 고쳐야할 점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받아 적게 하기

- feed back을 들은 사람은 긍정반응을 보이며 받아들이는 말하기

3. 대집단 활동(전체그룹)

• 10회기 동안 배운 것, 가장 좋았던 활동,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적어 보기

- 발표하기

4. 즐거운 파티

준비한 풍선을 장식하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마지막 날이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집단원이 많았으며, 집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나는 T는 집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며 K혜선은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올 것인지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나이키와 추리닝도 자신들이 꼭 집단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feed-back활동에서는 서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적 진솔하고도 예리하게 잘 반응을 하였고 듣는 집단원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처음 서로에 대해 feed-back하기를 주저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첫 회기때부터 비교적 구체적인 예를 잘 기억하며 장, 단점을 짚어 주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는데, 그동안 겉으로 표현은 잘 안했지만 서로에 대해 잘 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단점으로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쑥대머리나 골룸의 경우 자신들이 오히려 집단원들과 재미있고 친하게 지내려다 그렇게 된 것이라며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다른 집단원들도 친구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은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논문에서 인간적인 진솔함이 묻어 나온다면 그것은 모두 삶의 마디 마디를 성실과 인내로 이어오신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집안에서 아내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들에서 자유롭게 놓아 준 남편의 배려는 논문을 마무리 할 때까지 넉넉하고 여유로운 환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다하기까지 제대로 놀아 주지 못한 엄마에게 늘 사랑의 눈빛과 함께 파이팅을 외쳐 준 딸아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과 생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딸아이의 하교길을 책임져 주며 늘 정성으로 돌보아준 친정 오빠와 언니의 공로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으며, 함께 놀이 동무가 되어 준 조카 이정이와 요한이도 제가 마음 놓고 논문에 끝까지 몰두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찾아오던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해주신 김정규선생님의 은혜는 늘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치료자로서 든든한 안정감을 갖게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한 자 한 자 지도를 해주신 이정운선생님과 장재윤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부족한 저의 논문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집단치료 대상자와 장소를 열어 주신 보육원 원장님과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논문의 진행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늘 저와 집단치료를 챙겨주신 김금희선생님의 고마움도 내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사랑으로 따라 준 집단원들의 울고 웃던 모습들은 제 가슴에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보조치료자로 애써준 대학원 후배 임은경의 차분

하고 꼼꼼한 점은 저의 부족한 점이자 배울 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10회기의 집단치료 내내 참 많은 힘이 되어주어 고마운 후배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논문의 산을 함께 넘어 온 동료들 현주, 묘정, 현옥, 유경, 성훈, 주희, 윤선, 정훈, 선화, 은영, 혜영, 진영, 희진, 희정,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통계를 거뜬히 해결해 주어 막막한 저의 마음에 큰 안도감과 기쁨을 선물해준 지은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자료를 내어준 은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논문이 마치는 과정 내내 어찌먼 저보다 더 마음을 줄이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준 사랑스런 미현이의 마음은 늘 따뜻함으로 기억됩니다.

논문 작성이 어렵다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괴감에 한 숨을 내 쉴 때마다 곁에서 격려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 김중술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은 제게 크신 분이시고 아버지같은 분이십니다.

성장기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은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 삶의 어두운 면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거름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논문을 완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